

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

운영위원회위원장

유치원장



회의 일시 및 장소 2018년 7월 11일(화요일) 저녁 18시30분, 유치원 1층 빛반 교실

참석 위원 학부모위원(6명) - 박미현, 박정수, 장혜인, 김은주, 오유미, 장현수
교원위원(4명) - 양순실, 조문숙, 마혜란, 백윤미

상정안건

1. 2017학년도 결산서 검토 및 자문
2. 2018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만족도 조사결과 검토 및 자문

○ 위원장: 지금부터 제5기 2회 약수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.

먼저 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.

○ 원장: 잘 지내셨는지요?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
○ 간사: 위원장님! 지난 1회 회의 시 운영위원회 구성, 안전계획, 2018 예산서 등에 대해 나누는 회의기록 승인 부탁드립니다.

○ 위원장: 네. 탑재된 회의록 확인하였습니다. *** 서명처리**

<안건1. 2017학년도 결산서 자문>

○ 위원장: 먼저 지난 2017학년도 결산서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살펴보고, 궁금하시거나 자문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

○ ○○○위원: 항목에 대해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

○ 원장: 입학금 및 수업료에는 유아학비와 학부모부담금이 포함되고, 수익자 부담경비에는 급식비, 교통비, 특성화교육비가 들어갑니다. 구청에서 전년도에 실외놀이터 매트교체 사업 시 지원이 있었습니다. 보시다시피 인건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
○ 교원위원: 사실 정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. 올해도 교육비 1.3% 상한제를 지킨 원에 원당200만원 준다고 하는데, 그게 상한제를 지킬 수준의 지원인지 의문입니다.

○ 위원장: 결산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검토사항 있을까요? 이렇게 2017학년도 결산서를 마무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?

○ 위원들: 네. *** 전원 동의로 2017학년도 결산서 자문 마무리**

<안건 2. 2018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만족도 조사결과 검토 및 자문>

- 위원장: 이번에는 1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나누겠습니다. 먼저 오셔서 읽어 보셨을텐데, 나누고 싶거나 검토할 내용이 있을까요?
- ○○○위원: 홈페이지 동영상에 대한 의견도 있는데, 동영상 다운로드는 어렵습니까?
- 교원위원: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해당프로그램으로만 동영상을 탑재할 수 있고, 현재로서는 다운방법이 없다고 합니다. 이에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리고, 홈페이지에 그 링크를 올려서 회원만 클릭해 들어가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다음부터는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.
- ○○○위원: 유튜브도 다운은 안되지 않나요?
- ○○○위원: 유튜브 동영상 다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 유튜브 다운이라고 치면 방법들이 나와요. 그대로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.
- ○○○위원: 이번에 4세 캠페인 동영상 몇지더라구요. 유치원 곳곳이 찍혀 홍보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.
- ○○○위원: 종일반에 대한 의견들도 보입니다. 혼합연령인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.
- 교원위원: 홈페이지에 종일반교육안에 지난 활동사진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. 3,4,5세 혼합연령이라 중간인 4세 중심으로 진행하되, 수준별 교육을 합니다. 3세에게는 쉬운 난이도를, 5세에게는 2수준으로 좀 더 난이도를 높게 제시합니다.
- ○○○위원: 형님들 입장에서 동생들이 귀찮거나 수준이 맞지 않아 서로 갈등은 없지 않는지 걱정도 됩니다. 동생들이 치이지는 않는지 도요.
- 교원위원: 물론 항상 서로 배려하고 사이가 좋을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종일반에서 형제, 자매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동생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거나 글씨를 써 준다던지, 줄을 서거나 할 때 배려를 해 준다던지, 또 동생들은 형님들이 잘하니까 동경하고 따르는 모습도 보이구요. 함께 하면서 학습적인 면이나, 사회 정서적인 면에서 다양한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교사도 여러모로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○○○위원: 맞아요. 위에 형제, 자매가 있으면 둘째들이 발달이 빠른 것 처럼요.
- 교원위원: 종일반 사진이 1주일에 1번 정도 업데이트되는데, 작년 요리와 동극활동에 치중해 올렸던 것에 비하면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들 하고 계세요. 그래서 더 많이 올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, 빠지는 유아 없이 골고루 보실 수 있게 올리도록 안내는 하였습니다.
- 간사: 사실 종일반을 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점과 염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에 담임교사들이 학부모와 교류를 자주하면 좋은데, 시간대가 오후가 보니, 수업 끝나고 하거나, 오전에 연락드리기가 시간상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경력에 따라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교사도 있구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교사들이 부모님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○○○위원: 여름방학 때 종일반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요?
- 교원위원: 기존 사랑, 행복반 외에 추가로 신청한 유아는 단기대체강사를 채용해 기쁨반을 운영합니다. 대체강사는 유치원정교사 자격을 가지시고 경력이 있으신 분으로, 초중고의 기간제교사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- 간사: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오전에 등원 및 계획, 인사나누기, 자유선택활동, 간식, 집단활동 점심, 물놀이, 영어, 도서관활동 등을 주제에 맞춰 진행합니다.
- ○○○위원: 다른 선생님들은 안 나오시지요?
- 교원위원: 아닙니다. 당직이 다 있고, 오전 12시까지는 교육과정 교사들이 유아들을 돌봅니다.
- ○○○위원: 물놀이 시 남아 윗도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, 래시가드는 왜 안 되는지요?
- 교원위원: 안 되는 게 아니라, 아무래도 교사들이 유아들 수영복 세탁이며 관리를 하다 보니,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. 또 물놀이지간이 20~30분 정도라 짧기도 하고, 저희 이번에 그늘막도 구입해서 햇볕에 타는 것 그리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.
- 위원장: 또한 유아들이 스스로 입고 벗기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안내하신 거 같습니다. 올라갈수록 스스로 혼자하려는 면이 많아지잖아요.
- ○○○위원: 그런데 사진보면 또 어떤 아이들은 입고 있으니까...
- 교원위원: 근데 래시가드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기도 해요. 이것 때문에 따로 수영복을 구입하는 것도 그렇구요. 혹시 햇볕이 염려되셔서 썬크림을 보내주시면 발라주기도 해요.
- 간사: 여름철 물놀이는 유아들에게 신나지만, 제 입장에서 교사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활동이기도 해요. 비웃에 반바지까지 가져와 다 젖도록 유아들과 신나게 놀이하고, 정리까지 하고, 오후의 지친 모습은 정말 우리 부모님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. 우리 교사들 날만 맑으면 물놀이 시간 잡으려고 서로 얼마나 치열하다구요.
- ○○○위원: 이런 설명들을 해 주시면 좋았을텐데.. 우리 아이도 래시가드 챙겨 보내려니까 바지만 가져가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구요. 선생님 말씀은 얼마나 잘 듣는다구요.
- ○○○위원: 사진보니까 유아들 반바지나 원피스 수영복 입은 것도 귀엽더라구요.
- ○○○위원: 물놀이 관련해 전염병 염려 의견이 있는데, 괜찮은가요?
- 원장: 아직까지 수족구라든지 눈병 등 크게 우려할 만한 전염병은 없습니다. 손 씻기와 손 소독도 잘하고 있구요.
- 위원장: 작년에 수족구 유행할 때 등원 시 유아 손과 입 확인해 주시는 거 좋았어요. 발견돼서 못 들어가고 대기하는 유아도 있었구요. 이번에는 언제 하시나 했어요.
- 간사: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직 없어서 안 했는데,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.
- ○○○위원: 원장님 전에 건의한 화장실 종이타올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?
- 교원위원: 손을 씻고 손 털기가 제일 위생적인 거 같아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.
- ○○○위원: 저도 집에서 그렇게 지도하고는 있는데, 저희 아이가 면역이 약하다보니까 염려가 돼서요.
- 원장: 네. 고민하고 있습니다.

○ ○ ○ ○ 위원: 원장님 CCTV 설치에 대해서 올해 계획해서 내년에는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?

주변의 몇몇 분들이 다 좋은 데 이 부분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.

○ 원장: ○ ○ ○ ○ 위원님. 설치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?

○ ○ ○ ○ 위원: 선생님들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, 아이들끼리의 다툼 시 시시비비를 가리거나, 다쳤을 때 상황에 대한 파악 등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.

○ 위원장: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?

○ ○ ○ ○ 위원: 사실 저는 다니면서 CCTV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신뢰하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지만, 신입생의 경우 있고 없고에 따라 고민되는 요인이 아닐까 합니다.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어떤 상황에서 다쳤는지 궁금하긴 할 것 같습니다.

○ 원장: CCTV는 운영관리비가 큰 편이고, 설치 시 교직원 전원, 학부모 전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. 또한 문제발생 시 보여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포함한 학부모 전원의 동의하에, 경찰을 동반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○ ○ ○ ○ 위원: 요즘 해킹도 큰 문제입니다. 해킹해서 카메라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사건들이 적지 않은데, 이 또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.

○ 교원위원: 목소리 녹음 없이 동작만 찍히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. CCTV가 갈등을 해결할지 더 큰 오해와 분란을 불러올지 그것도 걱정됩니다.

○ ○ ○ ○ 위원: 소리가 녹음되는 것도 있습니다.

○ 간사: 사실 어린이집은 0~3세 말 전달이 쉽지 않은 영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지만, 유아들은 5~7세로 어느 정도 말 전달이 가능합니다. 굳이 설치해야 한다면 놀이터나 강당, 복도 등 교사의 시선이 다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설치 가능하다고 봅니다.

○ ○ ○ ○ 위원: 놀이터나 복도라도 시작해서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?

○ 원장: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○ 위원장: CCTV도 공기청정기처럼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CCTV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

여기 유치원비 카드결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.

○ 원장: 이체가 많이 불편하신가요? 사실 카드결제 시 부모님들 카드를 걷어 우리가 임의로 서명해 결제하는 건지, 기간을 두고 일일이 오셔서 결제하셔야 하는 건지, 제 주변 원장님들은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.

○ ○○○위원: 카드결제를 하는 원들은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. 백단위가 넘어가기도 해서 할부로 결제한다던지요. 우리원은 매월 비슷하게 나눠 놓으셔서 이체나 입금이 그리 큰 어려움은 아닌 듯 합니다.

○ 위원장: 소득공제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, 다 정산해 주시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.

○ 간사: 카드결제는 다음 달에 금액을 받는 거라, 예산집행 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? 또한 입금이나 이체가 통장에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들어온 항목대로 사용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

○ 간사: **방과 후 특활에 대해 형제, 자매를 보내는 가정에서 지루하다는 의견**은 어떠신가요?

○ ○○○위원: 부모님이 지루한 게 아닐까요? 개인적 의견인 것 같아요. 애들은 경험하는 게 다른데...

○ 교원위원: 코엔코도 퍼커션, 국악, 몰핀도 뉴기어, 기어도 연령마다 달라집니다. 아이들은 각자 다 다른 활동을 경험하게 되죠. 알찬 구성이라는 평가도 많으셨습니다.

○ ○○○위원: **방과 후 영어교재**는 전년에 키즈브라운이 활용도가 높고 구성이 좋을 거 같아요. 앱이 있긴 한데, 유아가 스스로 하기가 어렵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.

○ 교원위원: 영어강사의 경우, 질적으로 이번 선생님들이 매우 다양한 자료로 잘 가르치고 계셔서 저희 교사들은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. 전년에는 교재활용이 많다보니 그런 것 같고, 이번 선생님들은 선생님과 대화 게임, 찬트 등 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 주시려고 해요. 그래서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.

○ ○○○위원: 전 3세반 처음이라 그런지 아이도 영어활동 좋아하고, 집에서 따라하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

○ 위원장: 키즈브라운은 동화책 같아서 아이가 집에 와서 편하게 보기도 했는데, 이번 교재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. 그래도 영어시간에 선생님이랑 충분히 재미있게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.

이래서 참여수업 등 오픈할 때 참여해서 실제로 보셔야 해요.

○ ○○○위원: 그런데 저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30분정도 영어하고 와서 집에서 연계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.

○ ○○○위원: 저는 바빠서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, 작년 영어시간에 우리 아이는 피곤하다거나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자주 뒤에서 쉬곤 했었다는데, 올해 영어시간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런 것만으로도 잘 해 주고 계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.

○ 원장: 일단 올해 교재가 바뀐 거라, 진행되면서 교재에 대한 피드백 부탁드렸는데,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교재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. 하지만 현재 강사분들의 진행방식은 제 교육철학과 맞습니다.

- ○○○위원: 종일반 하원차량 운행은 어려우신가요? 지금은 도우미가 계셔서 괜찮은데, 둘째를 약수에 보내려면 또 도우미를 써야 해서 부담이 되는데...차량운행만 된다면 제가 케어할 수 있어서요.
- ○○○위원: 주변에도 보면 약수교육 좋은 데 종일반 시간이나 차량 운행이 안 맞아서 다른 곳에 간 유아들도 있더라고요.
- 원장: 네.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. 기사님 여건, 차량섭외, 교사 차량지도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.
- ○○○위원: 학부모님들의 격려와 칭찬의견도 많이 있네요.
- 교원위원들: 감사할 뿐입니다. 더 노력하겠습니다.
- 위원장: 4세가 주제 관련해서 하는 '아나바다' 시장놀이 다른 연령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. 전에 해 봤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고, 경제놀이도 되고 기부도 하고 교육적으로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.
- 교원위원: 2학기 주제가 딱히 맞는 게...
- 원장: 인성교육 관련해서 해 볼 수도 있겠네요.
- ○○○위원: 엄마들이나 위원들이 회수하고, 물품 전시하고 도와주기도 해요.
- 원장: 한 번 선생님들과 검토,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- 위원장: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? 그럼,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더 의견이 없으시면 여기 까지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눠야 할 안전이 있다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바쁘신데,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돌아가십시오.

기 록 자 : 조문숙(인)

! 뒤에 회의자료 첨부: 2017학년도 결산서, 1학기 교육과정운영 만족도 조사결과